

# 자동차산업 2022년 하반기 동향

## I.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

1. 자동차 판매량
2. 친환경자동차 판매량
3. 순수전기차(BEV) 판매량
4. 수소전기차(FCEV) 판매량

## II.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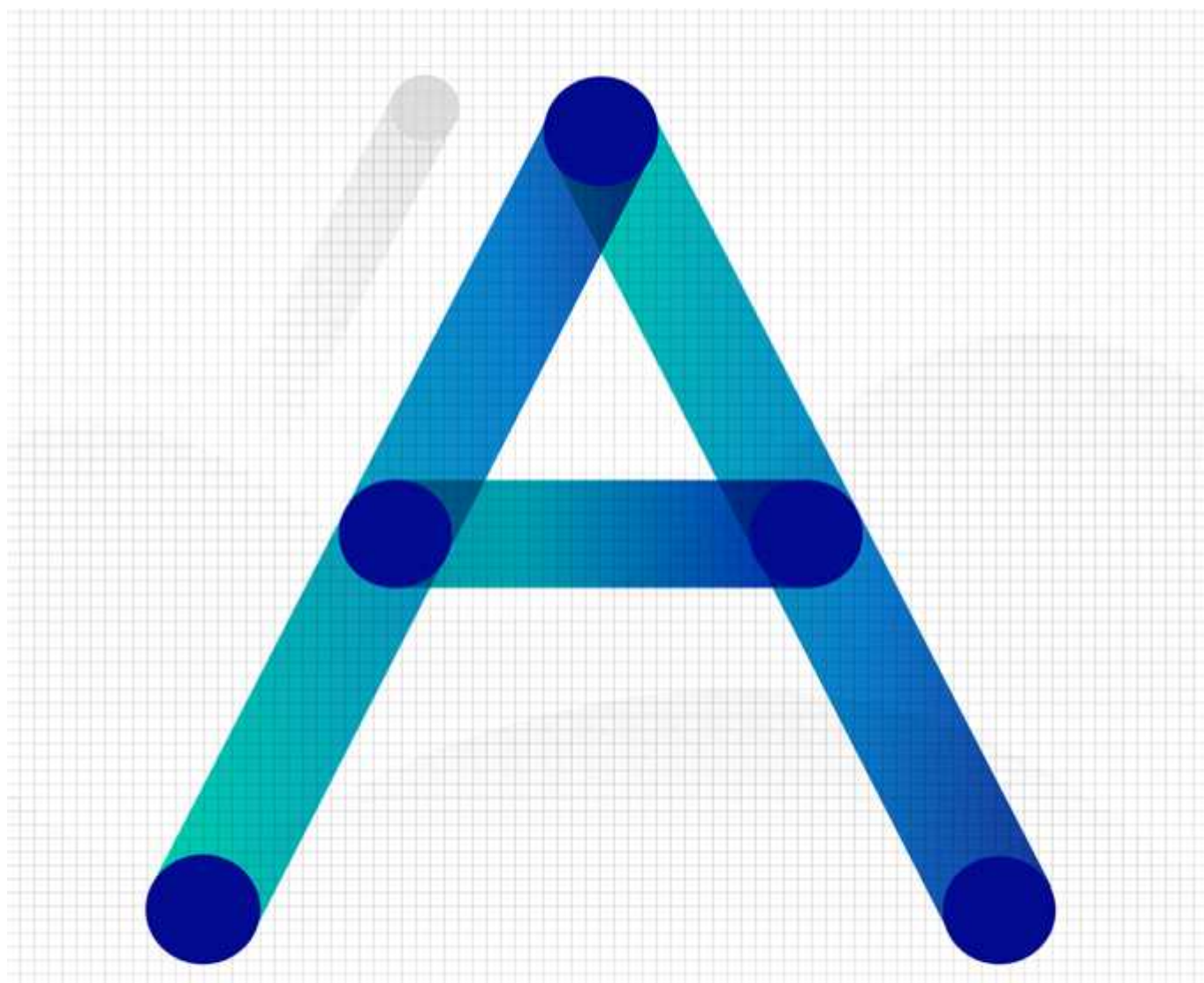
1. 국내 생산 및 판매
2. 자동차 수출
3. 해외 생산 및 판매
4. 국내 제조사 매출 및 동향

## III. 시사점 및 전망

### 작성

책임연구원 김호건 (02-6252-3610)

인턴 차은지 (02-6252-3605)





## < 요약 >

### I.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

**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4,322만대, 판매량은 4,145만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.8%, 7.8% 증가**
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.8%, 전기 대비 10.1%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생산량인 4,480만대의 96.5% 수준까지 회복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.8%, 전기 대비 9.2%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인 4,442만대의 93.3% 수준까지 회복

**하이브리드(HEV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, 순수전기차(BEV), 수소전기차(FCEV)를 포함하는 친환경자동차의 20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8.2% 증가한 811만대**

-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14.2%에서 '22년 하반기 19.6%로 5.3%p 확대
- \*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(%): ('21上) 9.5 → ('21下) 14.2 → ('22上) 15.7 → ('22下) 19.6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467만대, 하이브리드 178만대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3만대, 수소전기차 0.7만대로 순수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

### II.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

**(국내 생산량)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.0% 증가한 198만 대**
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%, 전기대비 11.2% 증가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생산량인 192만대 상회

**(국내 판매량)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.4% 증가한 87만대**
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생산지연 해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.4%, 전기대비 8.5% 늘어나며 증가 추세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(91만대)의 95% 수준까지 회복
-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8.4% 증가한 19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2.2% 차지



**(수출액)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의 수요회복, 친환경자동차 및 고부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.0% 증가하며 역대 최고금액 297억 달러 달성**

- '1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252억 달러 달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액 297억 달러 달성

\* 반기별 자동차 수출액 경신: ('12上) 248 → ('14上) 252 → ('22下) 297

-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 상승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비중 확대,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증가

**(친환경자동차 수출액)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국내 브랜드 판매호조 및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.2% 증가한 88억 달러**
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'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최대 실적 기록 중
-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28.6%에서 '22년 하반기 29.5%로 확대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46억 달러, 하이브리드 34억 달러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억 달러로 각각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15.5%, 11.6%, 2.5% 차지

**(제조사 매출) 반도체 공급난 완화, 수요회복 등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국내 제조사의 매출이 확대됨**

- (현대차 그룹) 현대와 기아는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'22년 하반기 매출은 각각 27.3%, 32.6% 늘어난 76.2조원, 46.3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
- (기타) 2022년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각각 9년과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, KG모빌리티도 판매량 증가로 매출 확대

### III. 시사점 및 전망

**전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중국 및 유럽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별 성장세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**

- '23년 4월 미국은 IRA(인플레이션감축법)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'32년까지 신차의 67%를 전기차로 전환 계획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확대할 전망
- 유럽은 보조금 축소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기차 충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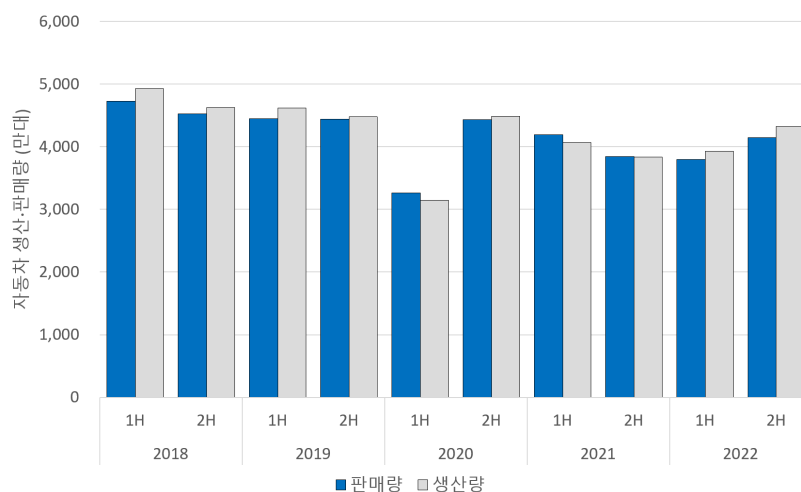
## I.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

### 1. 자동차 판매량

**(생산·판매량)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4,322만대, 판매량은 4,145만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.8%, 7.8% 증가**
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.8%, 전기 대비 10.1%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생산량인 4,480만대의 96.5% 수준까지 회복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.8%, 전기 대비 9.2%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인 4,442만대의 93.3% 수준까지 회복
-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'20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나 '22년 하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판매량 증가세 실현
- '22년 하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생산량·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으나 '23년 1분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완전한 해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
- '23년 1월 혼다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본 내에서 일부 Civic모델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
- 아우디는 '22년 연례보고서에서 '23년에도 전력반도체 등이 부족할 것이라 밝힘
- 스텔란티스는 '23년 1월 반도체 및 부품 부족으로 이탈리아 공장 일주일간 생산 중단
- '22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4.5% 늘어난 8,250만 대, 판매량은 전년 대비 1.2% 감소한 7,942만 대로 각각 팬데믹 이전인 '19년 생산·판매량의 90.7%, 89.3%까지 회복

#### 전 세계 자동차 생산·판매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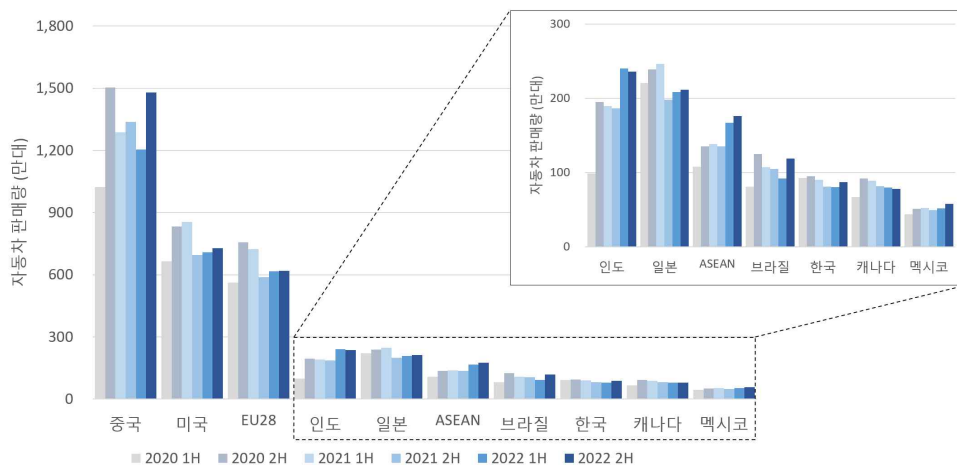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(주요시장) '22년 하반기 중국, 인도, 아세안의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.7%, 26.6%, 30.0%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미국과 EU28<sup>1)</sup>의 판매량은 각각 4.8%, 5.3% 증가에 그침

- '22년 하반기 자동차 주요 5개 시장은 판매량 순으로 중국(1,480만대), 미국(729만대), EU28(620만대), 인도(236만대), 일본(211만대)
  - EU28 중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(155만대), 영국(95만대), 프랑스(95만대)
- '22년 하반기 중국, 인도,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'19년 하반기 판매량을 회복
  -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빠르게 회복하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
    - \* 중국의 비중: ('21上) 30.7 → ('21下) 34.8 → ('22上) 31.7 → ('22下) 35.7
  - 판매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인도와 아세안의 비중은 각각 '21년 하반기 4.8%, 3.5%에서 '22년 하반기 5.7%, 4.2%로 확대
- 반면 자동차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28의 '22년 하반기 판매량은 '19년 하반기의 약 80% 수준
  - 한국 및 일본의 '22년 하반기 판매량은 '19년 하반기의 95.0%, 86.6% 수준으로 '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
- '22년 연간 판매량은 중국이 전년 대비 2.3%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28의 판매량은 각각 7.4%, 5.8% 감소
  - 상위 10개 시장 중 중국, 인도, 아세안, 멕시코 4곳을 제외한 시장의 '2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, '23년에는 증가할 전망

시장별 자동차 판매량



자료: MarkLines

1) EU28: EU27개국 + 영국



**(제조사별 판매량) '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자동차 판매량은 토요타그룹(500만대), 폭스바겐그룹(420만대), GM그룹(337만대), 현대차그룹(326만대), 스텔란티스(277만대) 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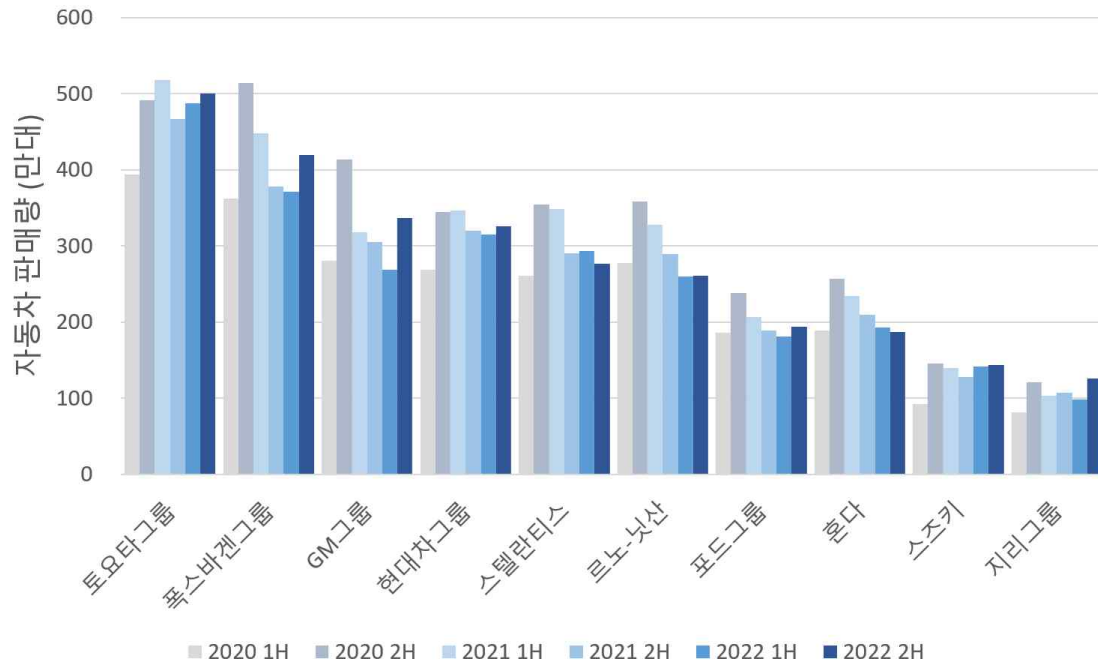
- '22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기업은 토요타그룹(+7.2%), 폭스바겐그룹(+11.0%), GM그룹(10.5%), 현대차그룹(+2.0%), 포드그룹(+2.6%), 스즈키(+12.6%), 지리그룹(+17.8%)으로 총 7곳
- 반면, 스텔란티스, 르노-닛산, 혼다의 판매량은 공급난 이슈 등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4.5%, 9.8%, 11.1% 감소
- '22년 하반기 GM그룹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글로벌 3위 달성
- '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제조사별로 부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차이 발생
- 주요 제조사 중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의 90% 이상 회복한 업체는 토요타그룹(98.7%), 현대차그룹(91.6%), 스즈키(104.5%), 지리그룹(116.4%)이 있음
- 반면 르노-닛산의 '22년 하반기 판매량은 '19년 하반기 판매량의 65.6%에 불과하며 폭스바겐그룹, GM그룹, 스텔란티스, 포드그룹, 혼다는 각각 70~80% 수준
- \* 폭스바겐그룹(77.9%), GM그룹(83.8%), 스텔란티스(74.6%), 포드그룹(77.6%), 혼다(72.8%)
- '22년 연간 토요타그룹, 스즈키, 지리그룹의 판매량은 각각 아세안, 인도, 중국 등에서의 판매호조로 전년 대비 0.3%, 6.7%, 6.5% 증가
- 상위 10개 제조사의 '22년 연간 판매량은 토요타그룹, 스즈키, 지리그룹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줄어든 제조사는 르노-닛산으로 15.6% 감소
-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공급난에 비교적 잘 대응하며 '22년 판매량 3위 달성

**(시장점유율) '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토요타그룹(12.1%), 폭스바겐그룹(10.1%), GM그룹(8.1%), 현대차그룹(7.9%), 스텔란티스(6.7%) 순**

- '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44.9%를 차지
- 폭스바겐그룹과 GM그룹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0.3%p, 0.2%p 확대된 10.1%, 8.1%
- 반면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가 크지 않은 현대차 그룹과 판매량이 감소한 스텔란티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.5%p, 0.9%p 감소한 7.9%, 6.7%
- 토요타그룹의 '22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12%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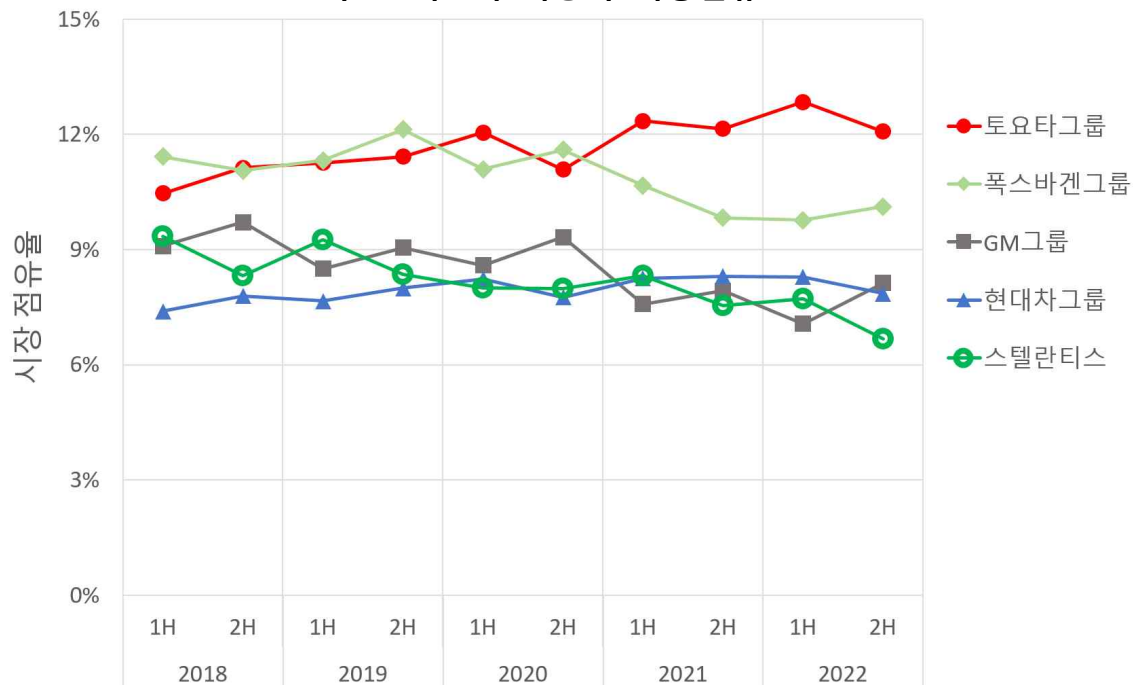


## 제조사별 자동차 판매량



자료: MarkLines

## 주요 제조사 자동차 시장점유율



자료: Mark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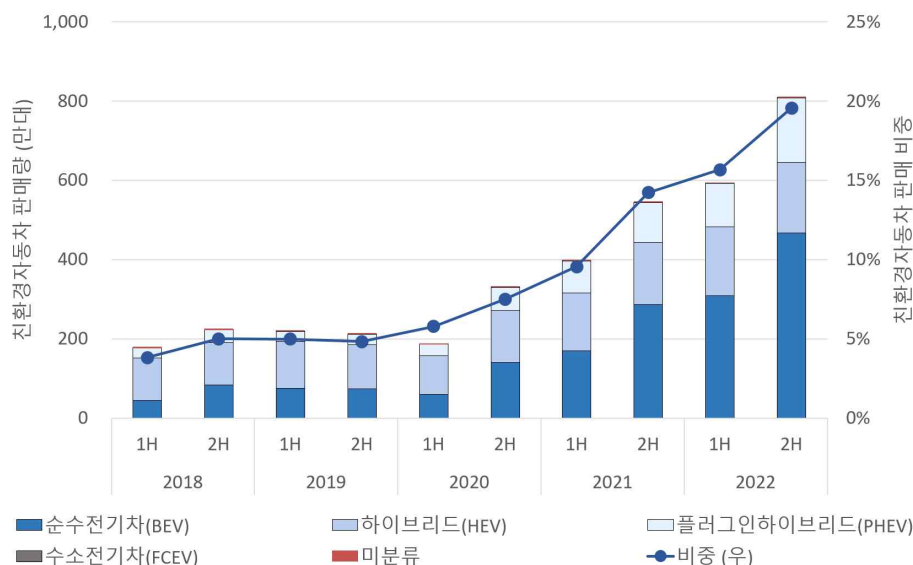


## 2. 친환경자동차 판매량

(판매량) 하이브리드(HEV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, 순수전기차(BEV), 수소전기차(FCEV)를 포함하는 친환경자동차의 20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8.2% 증가한 811만대

-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14.2%에서 '22년 하반기 19.6%p 확대
- \*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(%): ('21상) 9.5 → ('21하) 14.2 → ('22상) 15.7 → ('22하) 19.6
- '22년 하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467만대, 하이브리드 178만대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3만대, 수소전기차 0.7만대로 순수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
-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'20년 하반기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추월하였으며, '21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의 50%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
-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 비율은 순수전기차(57.6%), 하이브리드(22.0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20.1%)
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62.8%, 63.1% 증가하였으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4.0% 증가에 그치면서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6.6%p 축소
- '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8.4% 증가한 1,405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7.7%를 차지

친환경자동차 판매량



주) 미분류는 HEV, PHEV, BEV 모델이 모두 있는 차종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경우 (ex. 기아 NIRO)

자료: Mark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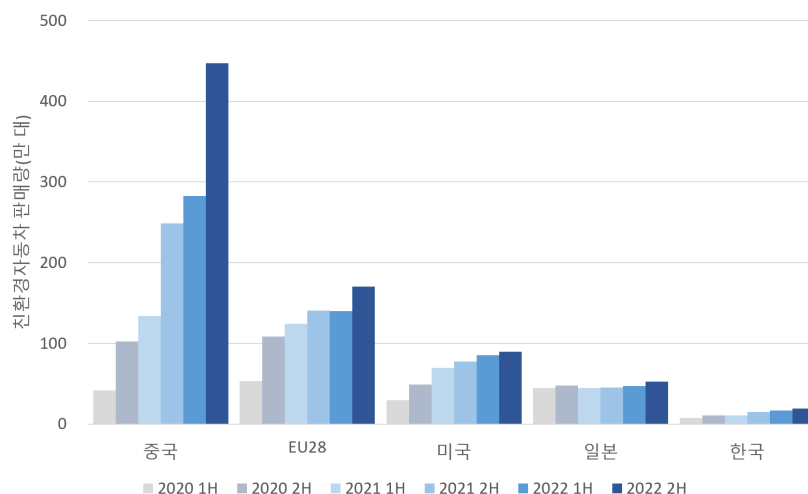




**(주요시장)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55.2%로 중국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EU28과 미국의 비중은 21.0%, 11.1%**
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는 중국(447만대), EU28(170만대), 미국(90만대), 일본(53만대), 한국(19만대)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6.1%를 차지
- 전체 자동차 시장은 상위 5개 지역(중국, 미국, EU28, 인도, 일본)이 79.0%를 차지하는 반면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상위 5개 지역(중국, EU28, 미국, 일본, 한국)이 전 세계 판매량의 96.1%를 차지
- EU28 중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(56만대), 영국(30만대), 프랑스(27만대)
- '22년 하반기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9.7% 증가하며 주요 5개 시장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일본은 15.2% 증가
- 중국은 '23년부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영향 등으로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크게 증가
- '22년 하반기 EU28, 미국, 한국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1.1%, 16.0%, 28.4% 증가
- 미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12.3%가 친환경자동차로 주요시장 중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이 가장 낮은 시장
- \* '22년 하반기 시장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: 중국(30.2%), EU28(27.5%), 일본(24.8%), 한국(22.2%), 미국(12.3%)
- '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중국(730만대), EU28(310만대), 미국(175만대), 일본(100만대), 한국(36만대)

**시장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**



자료: MarkLines



**(제조사별 판매량) 20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BYD(122만대), 토요타그룹(109만대), 테슬라(87만대), GM그룹(49만대), 폭스바겐그룹(48만대) 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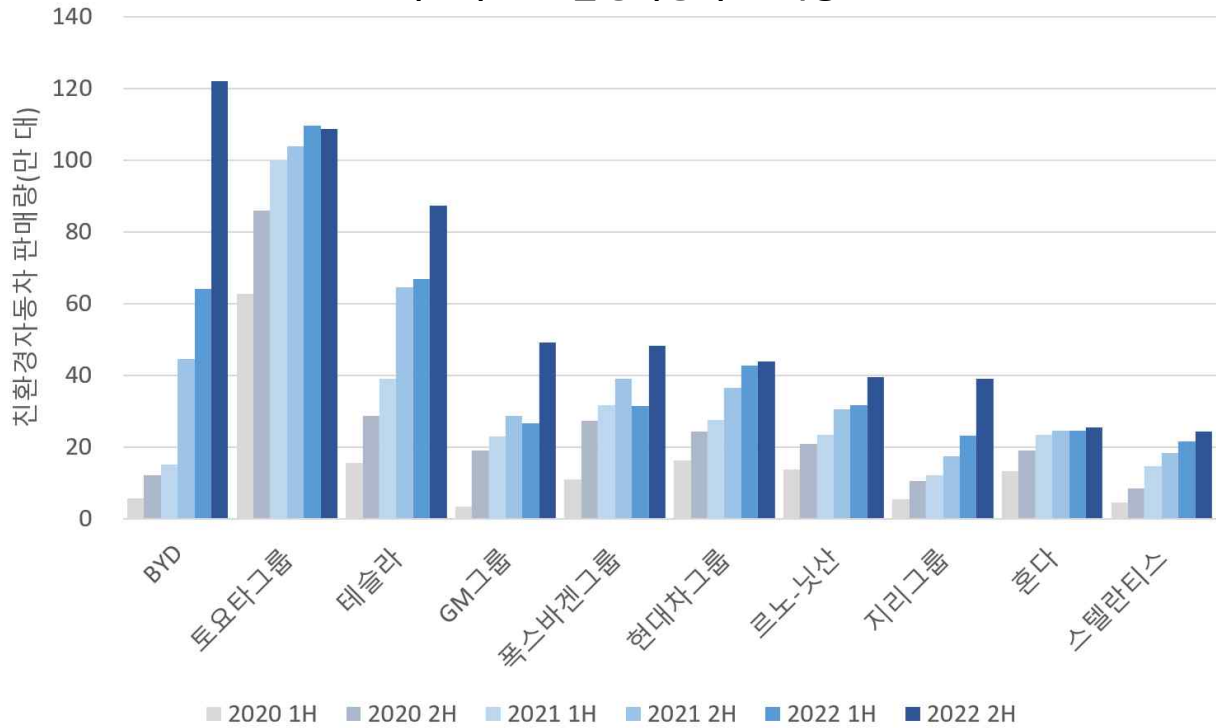
- 중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BYD의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74.2% 증가한 122만대로 토요타를 넘어 판매량 1위 달성
  - '22년 하반기 BYD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99.2%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, 일본,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- 토요타의 친환경자동차 판매의 95.4%는 하이브리드로 순수전기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'22년 하반기 토요타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.7% 증가에 그침
  -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혼다의 판매량도 전년동기 대비 3.7% 증가에 그침
- 중국에서의 판매량 비중이 높은 완성차 제조사가 대체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
  - '22년 하반기 GM은 상하이차, 우링과의 합작사인 SGMW의 홍콩미니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70.8% 증가
  - 중국 비중이 64.1%인 지리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3.3% 증가
-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높은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5.2% 증가한 87만대
- 그 외 주요 제조사의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스텔란티스(32.2%), 르노-닛산(28.8%), 폭스바겐그룹(23.6%), 현대차그룹(19.8%)
- '22년 연간 BYD는 전년 대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조사로 212.4% 증가하였으며 뒤를 이어 지리그룹이 109.9%, 테슬라가 48.7% 증가

**(시장점유율) '22년 하반기 BYD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6.9%p 증가한 15.0%로 1위를 달성하였으며,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를 하는 토요타그룹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5.6%p 줄어든 13.4%로 지속적인 하락세**

- '22년 하반기 상위 5개 제조사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은 51.2%로 전체 자동차 상위5개 제조사의 점유율(44.9%) 대비 높음
- BYD의 가파른 성장세 등으로 테슬라, 폭스바겐그룹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은 각각 1.0%p, 1.2%p 감소하였으나 GM그룹의 점유율은 중국에서의 판매호조 등으로 0.8%p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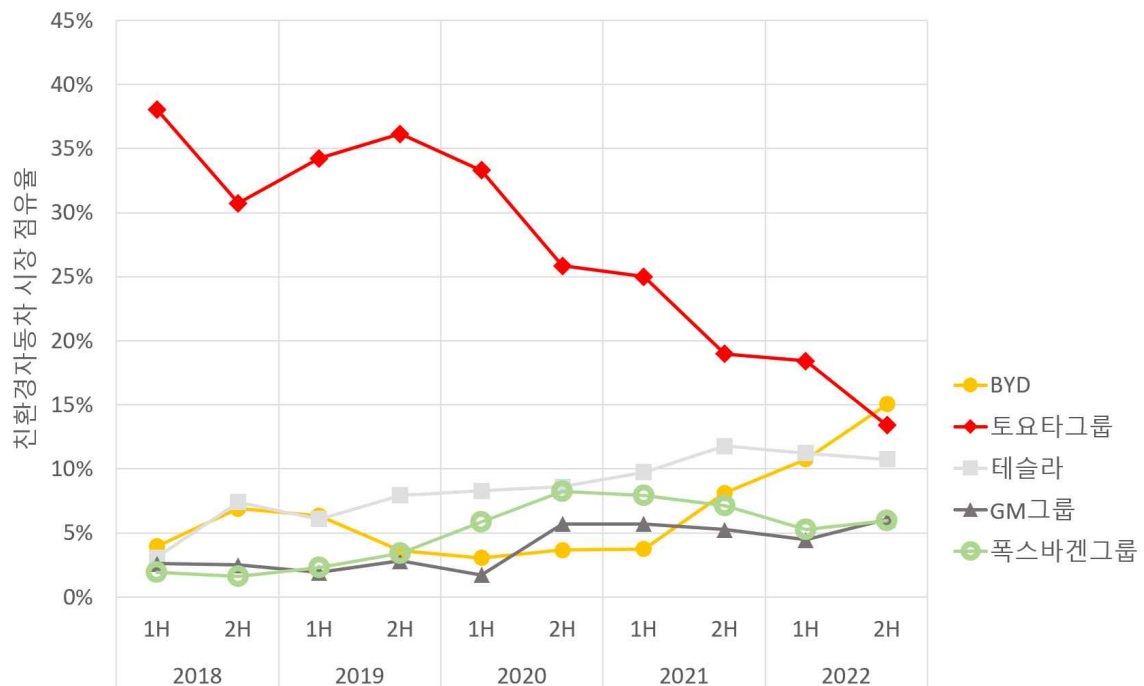


## 제조사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



자료: MarkLines

## 주요 제조사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



자료: Mark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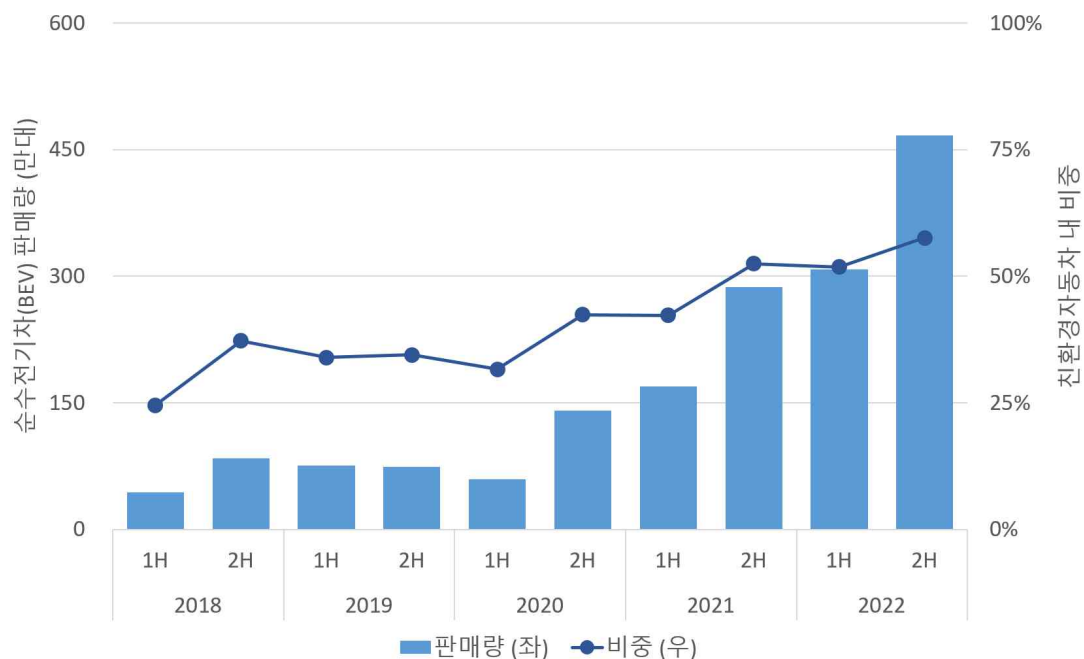


### 3. 순수전기차(BEV) 판매량

(순수전기차 판매량) 20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2.8% 증가한 467만대

- 순수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로 '21년 하반기 52.4%에서 '22년 하반기 57.6%로 5.2%p 확대
- \* 친환경자동차 내 순수전기차 판매 비중(%): ('21상) 42.2 → ('21하) 52.4 → ('22상) 51.8 → ('22하) 57.6
-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'21년 하반기 7.5%에서 '22년 하반기 11.3%로 3.8%p 확대
- '22년 연간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0% 증가한 775만대
-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48.1%에서 55.1%로 증가
-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5.7%에서 '22년 9.8%로 증가

순수전기차(BEV) 판매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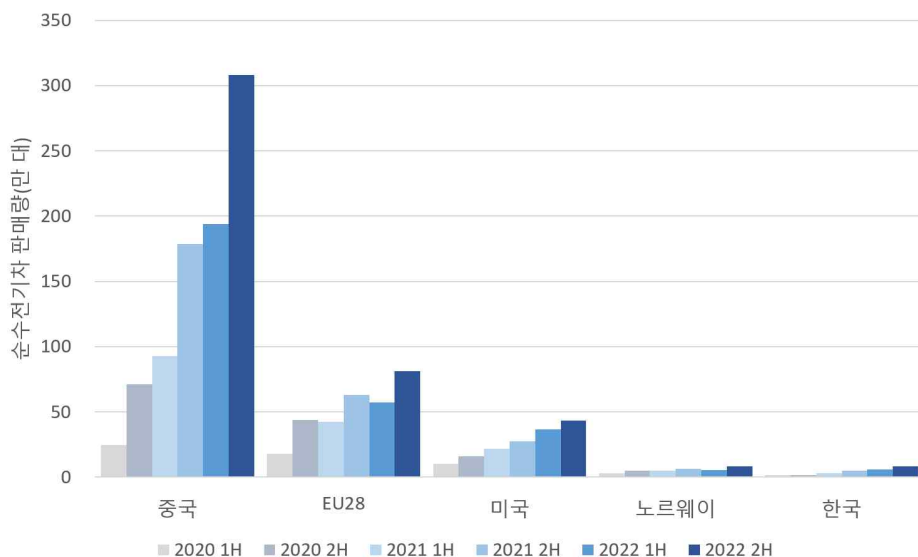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**(주요시장)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순수전기차 판매량 중 중국의 비중은 66.0%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EU28, 미국은 뒤를 이어 각각 17.4%, 9.3%를 차지**

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중국(308만대), EU28(81만대), 미국(44만대), 노르웨이(8만대), 한국(8만대)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6.3%를 차지
- '22년 하반기 중국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'23년 보조금 폐지 영향 등으로 크게 증가
- 이에 따라 순수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'21년 하반기 54.8%에서 '22년 하반기 66.0%까지 확대
- 반면, EU28의 비중은 21.9%에서 17.4%로 축소되었으며 미국의 순수전기차 시장 비중은 '21년 하반기 9.6%에서 '22년 하반기 9.3%로 비슷한 수준 유지
- EU28 중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(29만대), 영국(16만대), 프랑스(11만대)
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5개 시장 중 판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장은 중국으로 전년동기 대비 72.5% 증가
- 노르웨이는 상위 5개 시장 중 순수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.2%로 가장 높은 시장
- \* '22년 하반기 시장별 순수전기차 판매비중: 노르웨이(67.2%), 중국(20.8%), EU28(13.1%), 한국(9.5%), 미국(6.0%)
- '22년 하반기 EU28, 미국, 한국의 순수전기차의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29.4%, 58.5%, 60.8%

**시장별 순수전기차 판매량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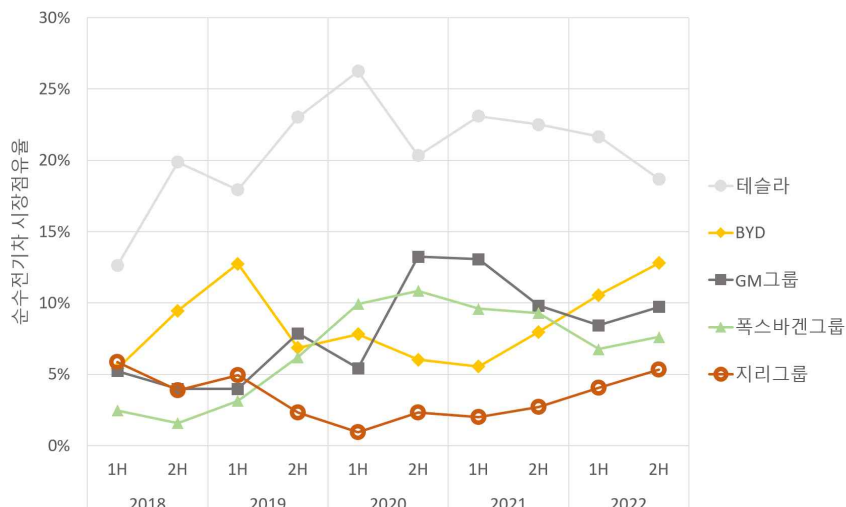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**(시장점유율)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5개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테슬라(18.7%), BYD(12.8%), GM그룹(9.7%), 폭스바겐그룹(7.6%), 지리그룹(5.3%) 순**

- '22년 하반기 테슬라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87만대로 글로벌 1위를 유지하였으나 BYD 및 지리그룹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테슬라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3.8%p 감소한 18.7%
- 60만대를 판매한 BYD와 25만대를 판매한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시장점유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4.8%p, 2.6%p 확대된 12.8%, 5.3%
- BYD와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1.3%, 221.4% 증가하며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율은 35.2%로 점유율 축소
- BYD와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98.4%, 72.3%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파른 순수전기차 성장과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
- GM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1.3% 증가한 45만대로 점유율은 '21년 9.8%, '22년 9.7%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
- GM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대부분 상하이차, 우링과의 합작사인 SGMW에서 발생하여 중국의 비중이 높음(89.6%)
- 폭스바겐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3.5% 증가한 36만대로 점유율은 '21년 9.3%에서 '22년 7.6%로 1.7%p 감소

**주요 제조사 순수전기차 시장점유율**



자료: MarkLines



#### 4. 수소전기차(FCEV) 판매량

(수소전기차 판매량) 2022년 하반기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.5% 증가한 7,499대
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수소전기차의 비중은 0.09%로 매우 미미한 수준
-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0.13%에서 순수전기차 등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며 '22년 하반기 0.09%로 축소
- \* 친환경자동차 내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(%): ('21상) 0.21 → ('21하) 0.13 → ('22상) 0.13 → ('22하) 0.09
- '22년 연간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.4% 감소한 1.5만대
- '22년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0.16%에서 0.11%로 축소
- '22년 연간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1.5만대로 '18년부터 '22년까지 연평균 41.1%씩 증가하는 등 성장 중이기는 하나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
- \* 연도별 수소전기차 판매량(만대): ('18) 0.4 → ('19) 0.8 → ('20) 0.8 → ('21) 1.6 → ('22) 1.5

수소전기차 판매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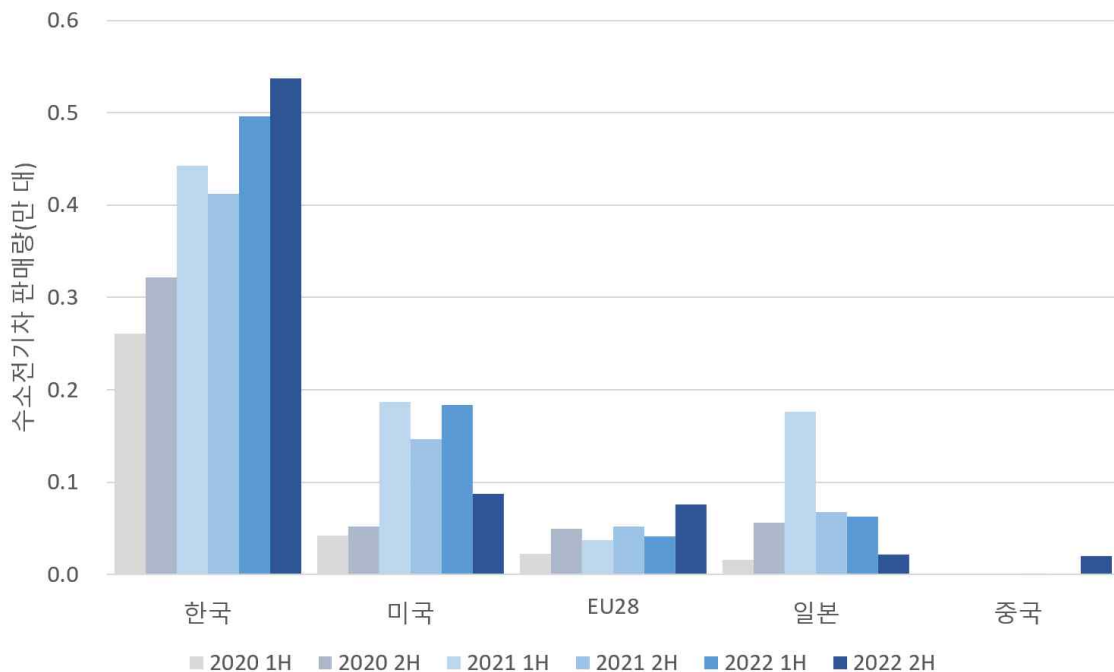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**(주요시장) 2022년 하반기 한국은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의 71.7%를 차지하며 수소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국과 EU28에서 각각 11.7%, 10.1%가 판매됨**

- '22년 하반기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한국(5,375대), 미국(874대), EU28(761대), 일본(220대), 중국(201대)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9.1%를 차지
- EU28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대부분 독일(544대)과 프랑스(180대)가 차지
- '22년 하반기 한국과 EU28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30.3%, 47.2%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판매량은 각각 40.5%, 67.6% 감소
-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59.2%에서 '22년 하반기 71.7%로 확대하였으며 EU28의 비중도 7.4%에서 10.1%로 확대
- \* 수소전기차 한국 비중(%): ('21상) 51.9 → ('21하) 59.2 → ('22상) 62.4 → ('22하) 71.7
- 반면 미국이 수소전기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21.1%에서 '22년 하반기 11.7%로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비중도 9.7%에서 2.9%로 축소

**시장별 수소전기차 판매량**



자료: Mark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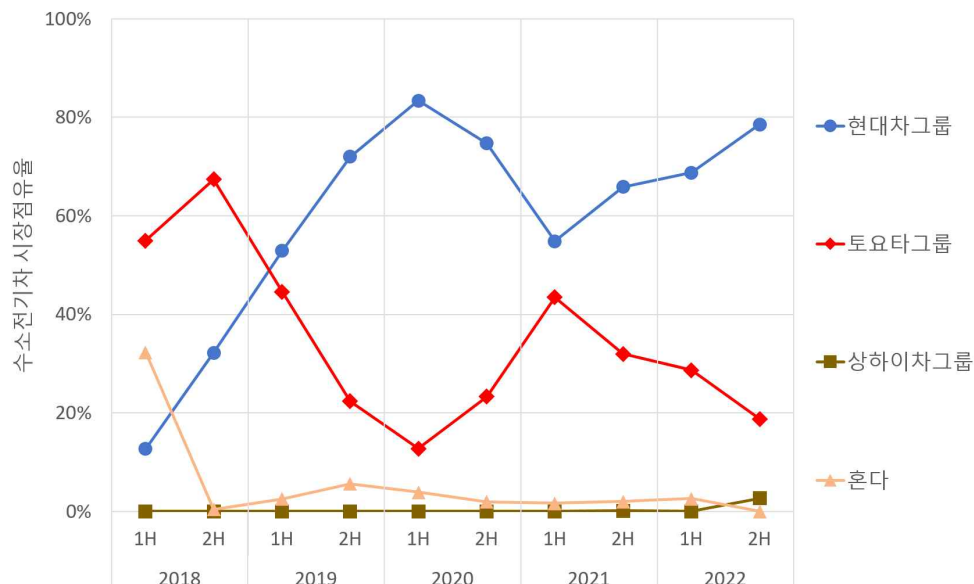




**(시장점유율) 수소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현대차그룹(78.5%), 토요타그룹(18.8%), 상하이차그룹(2.7%)**

- 수소전기차는 시장 형성단계로 판매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넥쏘와 일렉시티, 토요타의 미라이, 상하이차그룹의 EUNIQ7로 제한되어 있음
- 혼다는 수소전기차 클래리티를 '21년 단종시켰으며 '24년 차세대 수소전기차 발표 예정
-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'21년 하반기 65.9%에서 '22년 하반기 78.5%로 12.6%p 확대된 반면 토요타그룹의 수소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1년 하반기 32.0%에서 '22년 하반기 18.8%로 13.2%p 축소
- 수소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그룹과 토요타그룹 양강구도에서 한국의 판매량 비중이 높아지며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이 확대됨
-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판매량 중 한국의 비중은 91.3%로 대부분을 차지
- 미국 수소전기차 시장은 토요타그룹이 84.3%, 현대차그룹이 15.7%를 차지
- EU28 수소전기차 시장은 토요타그룹이 45.8%, 현대차그룹이 41.3%를 차지
- 상하이차그룹이 출시한 수소전기차 EUNIQ7은 중국에서 201대 판매

**주요 제조사 수소전기차 시장점유율**



자료: MarkLin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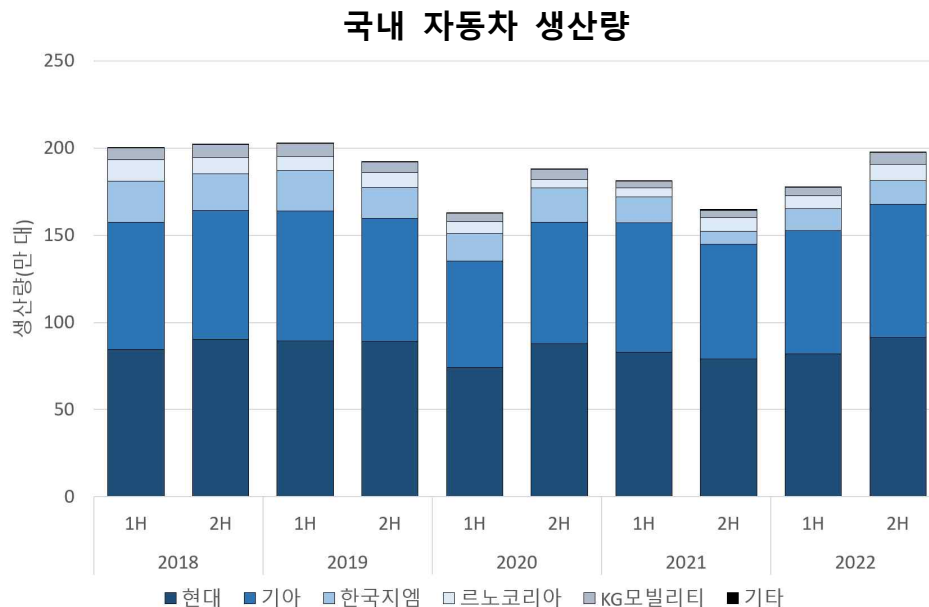
## II.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

### 1. 국내 생산 및 판매

**(국내 생산량)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.0% 증가한 198만 대**
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%, 전기대비 11.2% 증가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생산량인 192만대 상회
- 현대차그룹의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5.8% 확대된 167만대
- '22년 하반기 현대차(제네시스 포함)와 기아의 생산량은 각각 80만대, 76만대로 국내 자동차 생산의 46.2%, 38.7%를 차지
- '22년 하반기 한국GM, KG모빌리티(쌍용), 르노코리아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3만대, 9만대, 7만대
- 한국GM, KG모빌리티, 르노코리아의 '22년 하반기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했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80.9%, 56.9%, 20.7% 증가
- '22년 연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76만대로 전년 대비 8.5% 증가하며 '19년 395만대의 95% 수준까지 회복

\* 연도별 국내 자동차 생산량(만대): ('18) 403 → ('19) 395 → ('20) 351 → ('21) 346 → ('22) 376



자료: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(KAMA)



## (국내 판매량)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.4% 증가한 87만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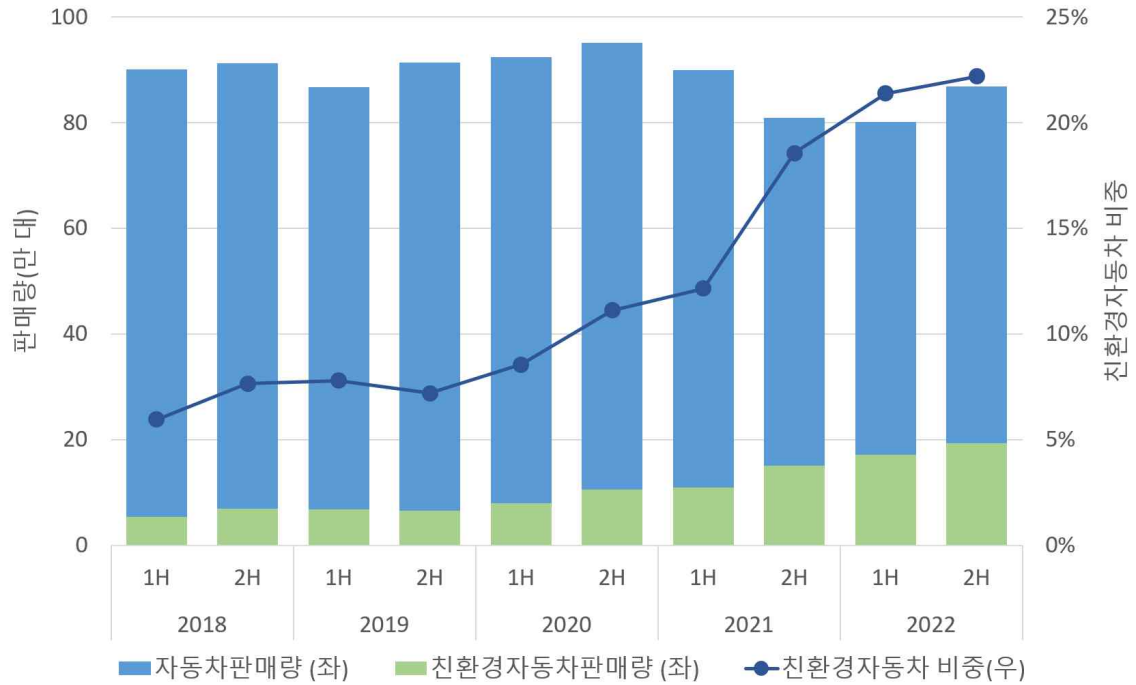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생산지연 해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.4%, 전기대비 8.5% 늘어나며 증가 추세
-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(91만대)의 95% 수준까지 회복
-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판매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
- '22년 연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상반기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출고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2.2% 감소한 167만대
  - \* 연도별 국내 자동차 판매량(만대): ('18) 178 → ('19) 178 → ('20) 187 → ('21) 171 → ('22) 167
- '22.12.31 종료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감면조치는 소비 진작 및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감안하여 '23.6.30까지 6개월 연장

## (친환경자동차 국내 판매량)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8.4% 증가한 19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2.2% 차지

- 순수전기차 판매호조 등 친환경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18.5%에서 '22년 하반기 22.2%로 3.6%p 확대
  - \* 친환경자동차 비중(%): ('21上) 12.2 → ('21下) 18.5 → ('22上) 21.4 → ('22下) 22.2
- '22년 하반기 국내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은 하이브리드 10만대, 순수전기차 8만대, 수소전기차 0.5만대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0.5만대
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0.8% 증가한 반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.3% 늘어나며 순수전기차 비중이 확대
-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확대할 전망
  - \*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전기차 비중(%): ('21上) 25.6 → ('21下) 34.1 → ('22上) 35.6 → ('22下) 42.7
- '22년 연간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.3% 증가한 36만대
-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(비중)은 하이브리드 20만대(54.7%), 순수전기차 14만대(39.4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.1만대(3.1%), 수소전기차 1.0만대(2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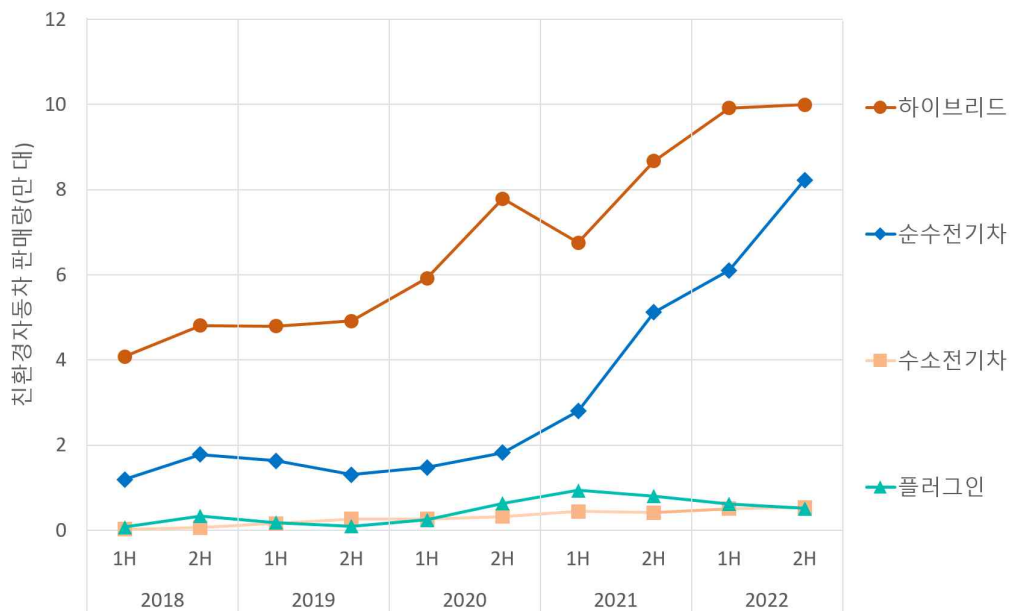


## 한국 자동차 판매량



자료: MarkLines

## 한국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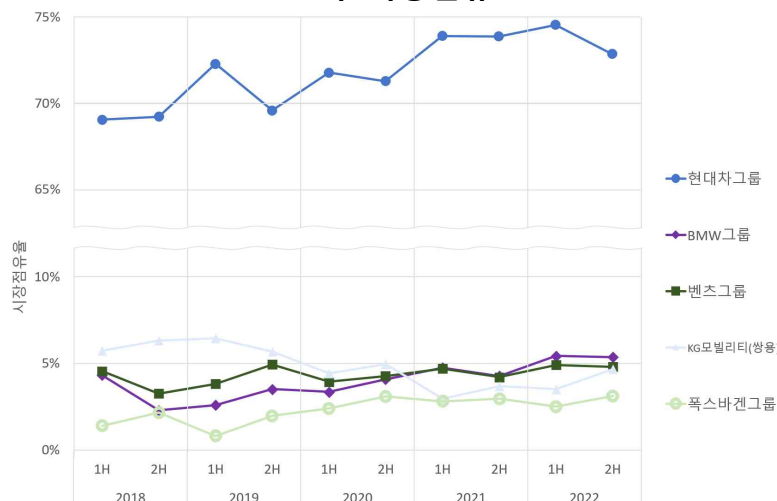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(한국 시장점유율) '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그룹(72.9%), BMW그룹(5.4%), 메르세데스-벤츠그룹(4.8%), KG모빌리티(4.7%), 폭스바겐그룹(3.1%)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

- 현대차그룹, BMW그룹, 메르세데스-벤츠그룹, KG모빌리티, 폭스바겐그룹 5개 제조사의 점유율은 신차 출시 등으로 '19년 하반기 85.7%에서 '22년 하반기 90.8%로 확대
-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.9% 증가한 63만대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1.0%p 축소되었으나,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대비로는 3.3%p 확대된 72.9%
-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, 기아, 제네시스 점유율은 각각 33.0%, 32.1%, 7.8%
- 제네시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'19년 하반기 2.7%에서 '22년 하반기 7.8%로 확대
- 반면 현대자동차(제네시스 포함) 점유율은 '19년 하반기 36.5%에서 '22년 하반기 33.0%로 축소되었으며 기아의 비중은 동기간 30.4%에서 32.1%로 증가
- KG모빌리티의 '22년 하반기 국내 판매량은 신차 토레스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.2% 증가한 4만대로 점유율은 1.0%p 확대된 4.7% 차지
- BMW그룹, 메르세데스-벤츠그룹, 폭스바겐그룹의 '22년 하반기 점유율은 각각 5.4%, 4.8%, 3.1%로 전년동기 대비 1.1%p, 0.6%p, 0.2%p 증가
- 국내 제조사인 르노코리아 및 한국GM의 '22년 하반기 국내 판매량은 각각 2.6만대, 2만대로 3.0%, 2.3% 점유율 차지
-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8.2% 감소하며 점유율은 1.0%p 축소하였으며 한국GM의 점유율 또한 판매량이 6.0% 줄어들며 0.3%p 축소

한국 시장점유율



자료: Mark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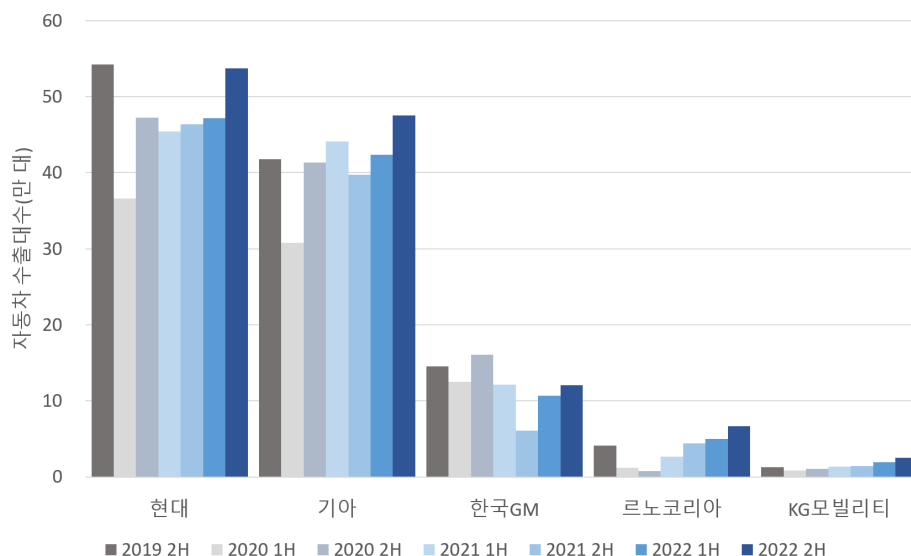


## 2. 자동차 수출

**(수출대수)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24.9% 증가한 123만 대**

- '22년 하반기 국내 제조사별 수출 대수는 현대(54만대), 기아(48만대), 한국GM(12만대), 르노코리아(7만대), KG모빌리티(3만대), 타타대우(0.1만대)로 총 123만 대 수출
- 국내 제조사의 수출량은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기저효과로 크게 증가
  -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15.8%, 19.5% 증가
  - 한국GM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및 트레일블레이저 등 수출 호조로 수출량 97.2% 증가하였으나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 수출량 회복이 가장 느림
  - 르노코리아의 수출량은 XM3, QM3 등 인기차종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50.5% 증가
  - KG모빌리티의 렉스턴스포츠, 코란도 등 수출량 증가 등 전년동기 대비 79.7% 증가
- 한국GM의 '22년 하반기 수출량은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15만대의 83.0%수준에 불과한 반면 다른 국내 제조사는 수출량 회복
- \* 제조사별 수출대수('19下→'22下, 만대): 현대(54→54), 기아(42→48), 한국GM(15→12), 르노코리아(4→7), KG모빌리티(1→3)
- '22년 연간 한국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230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'19년 240만대의 95.8%까지 회복

국내 제조사별 수출 대수



자료: MarkLines



**(수출액)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의 수요회복, 친환경자동차 및 고부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.0% 증가하며 역대 최고금액 297억 달러 달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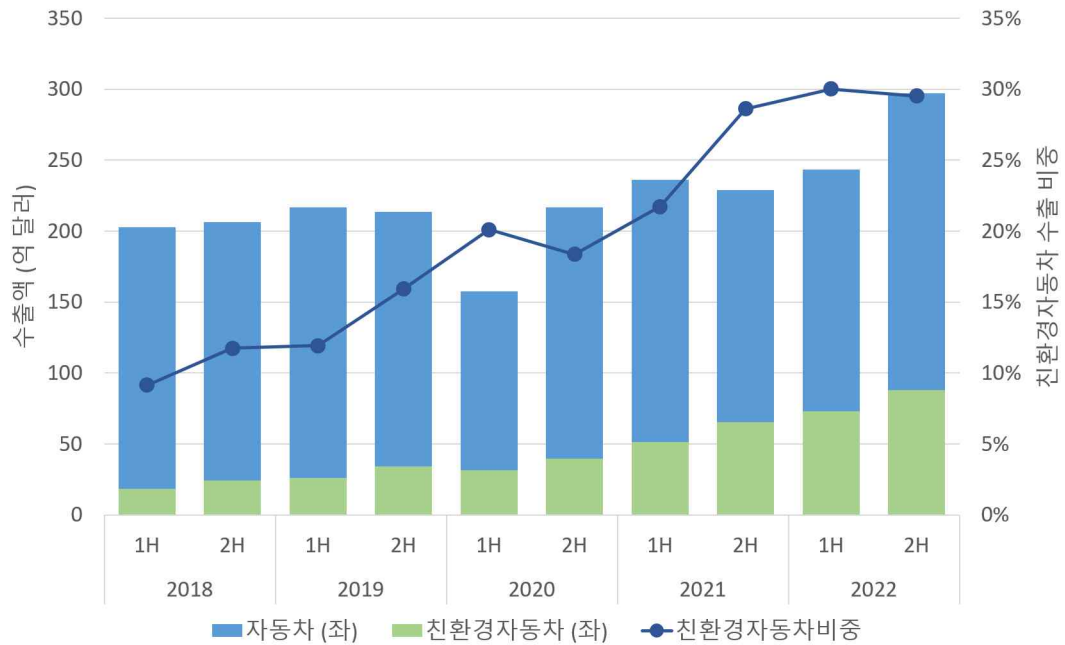
- '1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252억 달러 달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액 297억 달러 달성
  - \* 반기별 자동차 수출액 경신: ('12上) 248 → ('14上) 252 → ('22下) 297
-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 상승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비중 확대,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증가
  - '22년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는 전년 대비 4.4% 상승한 21,253달러
  -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출액 비중은 '22년 하반기 29.5%로 전년동기 대비 0.9% 증가
    - \* '22년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 평균단가(달러, 전년 대비): 하이브리드 22,258(△3.3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8,826(△3.7%), 순수전기차 36,075(+2.0%)
  - '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의 42.7%를 차지한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.4% 증가
- '22년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541억 달러로 '14년 484억 달러 이후 최대 실적

**(친환경자동차 수출액)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국내 브랜드 판매호조 및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.2% 증가한 88억 달러**
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'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최대 실적 기록 중
-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하반기 28.6%에서 '22년 하반기 29.5%로 확대
- '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46억 달러, 하이브리드 34억 달러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억 달러로 각각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15.5%, 11.6%, 2.5% 차지
  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37.0%, 41.4% 증가하였으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.7% 감소
  - '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.8%p, 0.9%p 확대된 반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비중은 0.8%p 축소
- '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.9% 증가한 16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1년 25.1%에서 '22년 29.7%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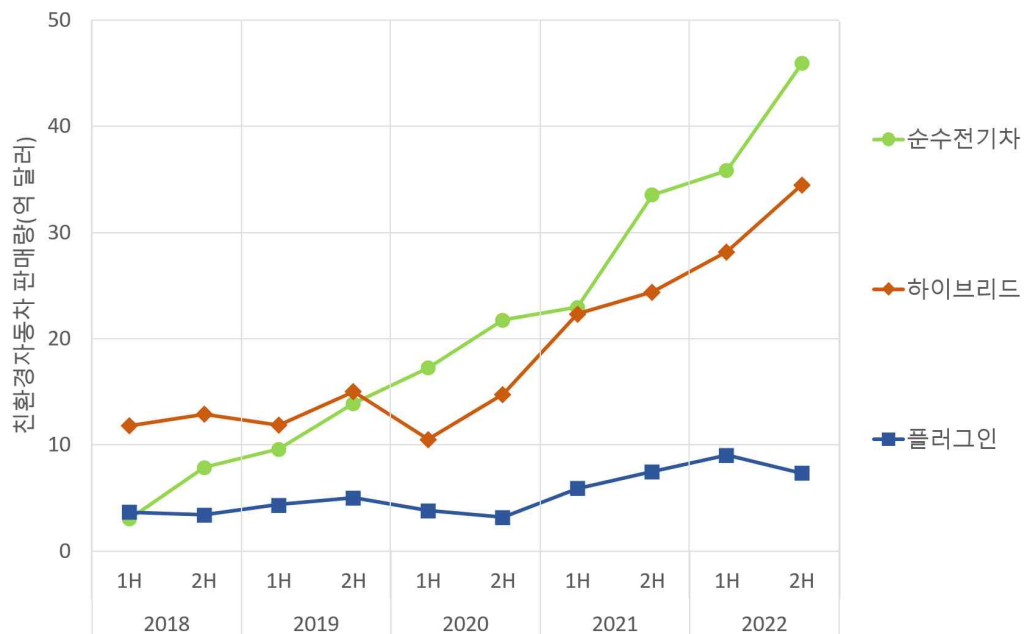


## 한국 자동차 수출액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##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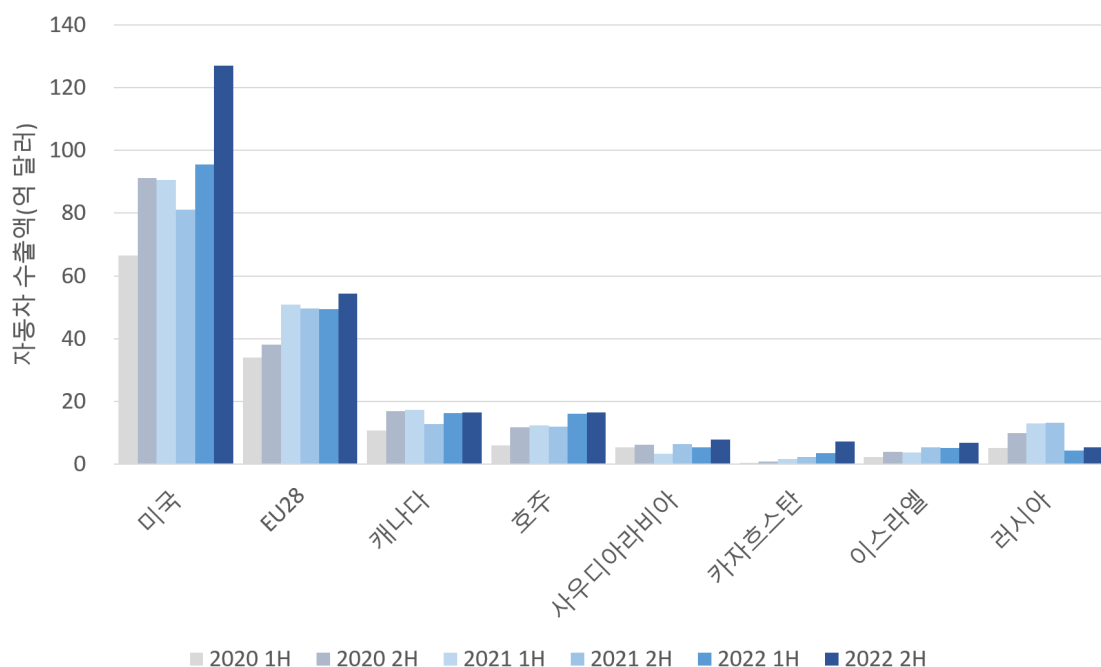




**(주요 수출대상국) 2022년 하반기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대상국은 미국(127억 달러), EU28(54억 달러), 캐나다(17억 달러), 호주(16억 달러), 사우디아라비아(8억 달러)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**

- '22년 하반기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.4% 증가한 127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7.2%p 확대된 42.7%
- '22년 하반기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수요회복 및 한국 업체 자동차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국 수출액 증가 주도
- '22년 하반기 대 EU28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.3% 증가에 그쳐 EU28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3.5%p 축소된 18.3%
- '22년 하반기 한국 자동차 수출액에서 각각 5.6%, 5.5%, 2.6%를 차지하는 캐나다, 호주,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.9%, 37.5%, 20.2% 증가
- '21년 하반기 13.3억 달러에 달하던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제재 영향으로 '22년 하반기 5.4억 달러로 축소
- '22년 하반기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 중 대부분은 중고차로 대 러시아 승용차(HS8703) 수출액 4.9억 달러 중 중고차의 비중은 98.7%

**한국 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액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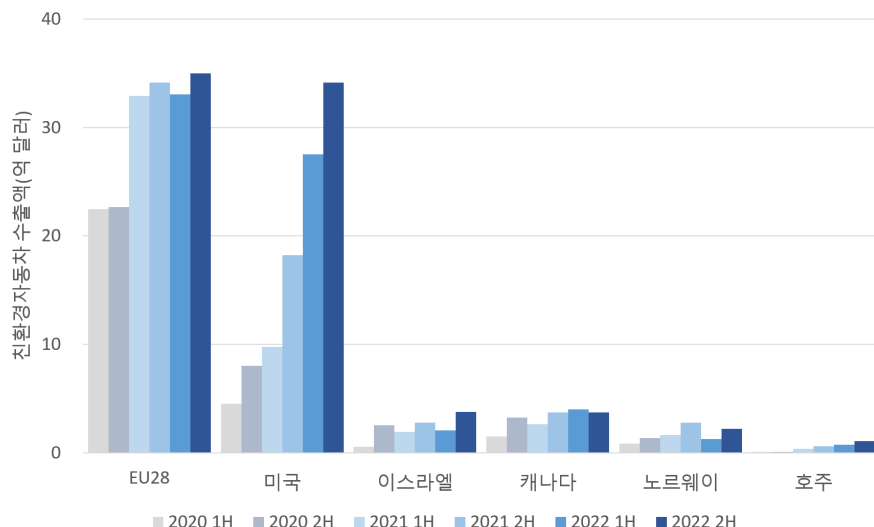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

**(친환경자동차 수출대상국)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은 EU28(35억 달러), 미국(34억 달러), 이스라엘(4억 달러), 캐나다(4억 달러), 노르웨이(2억 달러)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**

- '22년 하반기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대 미국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7.2% 증가한 34억 달러
- '22년 하반기 대 미국 순수전기차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4.0% 증가하였으나 '22년 8월부터 시행된 IRA영향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은 6.3%에 그침
- \* 대 미국 순수전기차 수출액(억 달러): ('21상) 2.0 → ('21하) 5.4 → ('22상) 13.3 → ('22하) 14.1
- 반면 '22년 하반기 대 미국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7.1%증가, 전기 대비로는 84.8% 증가하며 순수전기차 수출액 추월
- \* 대 미국 하이브리드 수출액(억 달러): ('21상) 7.0 → ('21하) 9.6 → ('22상) 8.7 → ('22하) 16.1
- '22년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드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한 순수전기차·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상업용 판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순수전기차 수출액은 증가할 전망
- '22년 하반기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.4%로 증가세 둔화
-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'21년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증가세 둔화
- '22년 하반기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20억 달러, 하이브리드 13억 달러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억 달러 순

**한국 친환경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액**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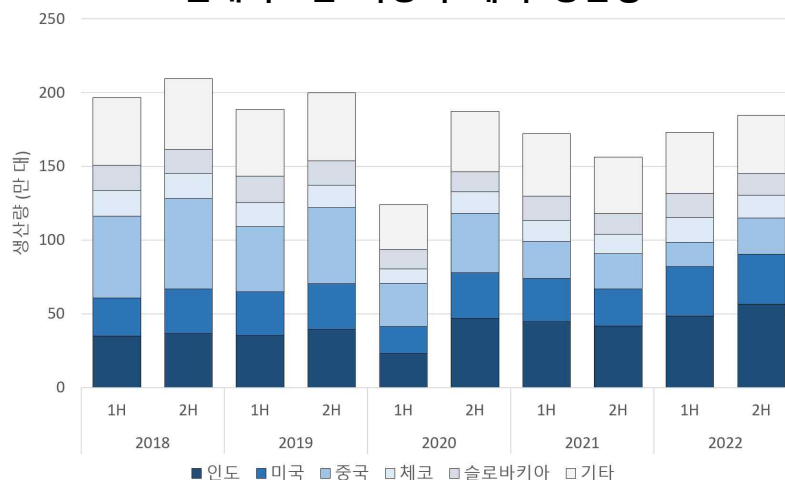
### 3. 해외 생산 및 판매

#### 가. 현대차 그룹

**(해외 생산량) 2022년 하반기 국내 제조사의 해외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8.2% 증가한 185만 대**

-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인도(56만대), 미국(34만대), 중국(24만대), 체코(16만대), 슬로바키아(15만대), 그 외(40만대) 순
- '22년 하반기 인도와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국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5.7%, 34.6% 증가
- 반면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중국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2.4% 증가하긴 하였으나 중국 내 판매 부진 등 중국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음
- \* 현대차 글로벌 생산량 중 중국 비중(%): (19下) 14.3 → (20下) 11.7 → (21下) 7.9 → (22下) 6.9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기에 12만대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던 러시아에서의 생산 중단은 '22년 하반기에도 지속
- '22년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은 각각 112만대, 72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0.8%, 31.8% 증가
- '22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생산량 중 해외생산량은 52.4%를 차지
- \* 현대차 해외생산량 비중(%): (19下) 55.6 → (20下) 54.3 → (21下) 51.9 → (22下) 52.4
- '22년 현대차그룹의 연간 자동차 해외 생산량은 357만대로 '19년 대비 92.1%까지 회복

**현대차그룹 자동차 해외 생산량**



자료: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(KAM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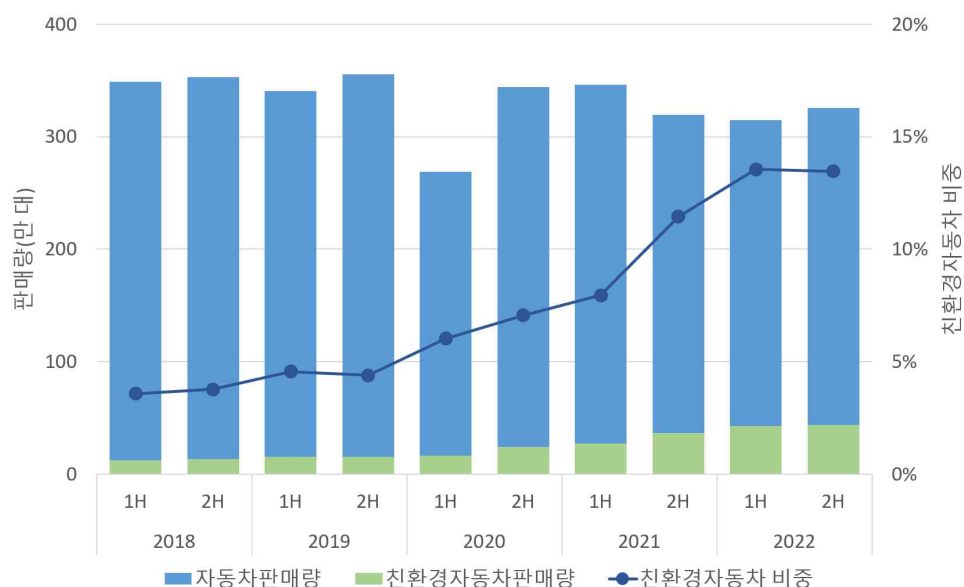
**(판매량)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.0% 증가한 326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 355만대의 91.6% 수준까지 회복**

- (전 세계)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현대차(제네시스 포함)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.1% 증가한 188만대이며 기아의 판매량은 1.8% 증가한 137만대
- '22년 하반기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11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.4% 성장
- '22년 연간 현대차그룹은 640만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판매량 3위 달성

**(친환경자동차 판매량)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9.8% 증가한 44만대로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5.4% 점유**

-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종류별 비중은 하이브리드 43.5%, 순수전기차 38.8%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4.8%
-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'22년 하반기 13.5%로 전년동기 대비 2%p 확대
- 그러나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 둔화 등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 대비 0.1%p 축소

**현대차그룹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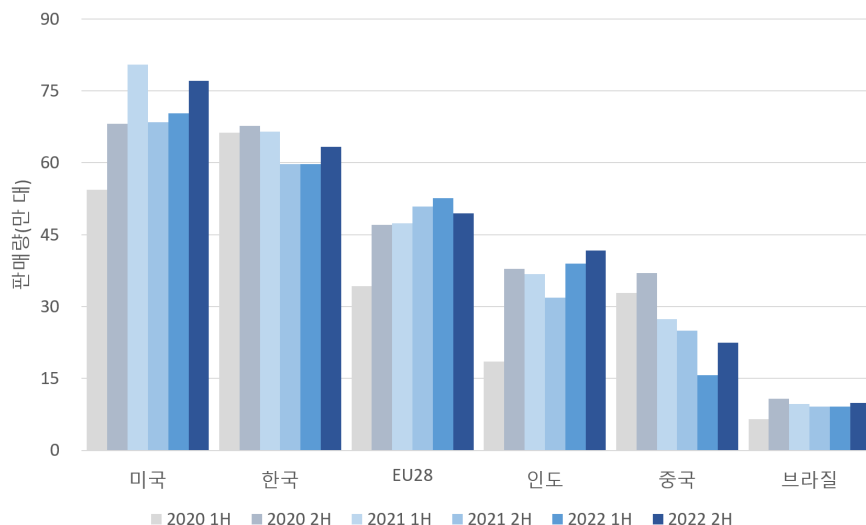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**(주요시장)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은 미국(77만 대), 한국(63만 대), EU28(49만 대), 인도(42만 대), 중국(22만 대), 브라질(10만 대) 순으로 높은 판매량 기록**

- '22년 하반기 주요시장인 미국에서의 현대차그룹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.7% 증가한 77만 대로 미국 시장점유율 10% 돌파
  - \* 현대차그룹 미국 시장점유율(%): (19下) 7.6 → (20下) 8.2 → (21下) 9.8 → (22下) 10.6
- 그러나, IRA 등의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기대비 31.9% 줄어들며 순수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'22년 상반기 9.4%에서 '22년 하반기 5.4%로 축소
- '22년 하반기 EU28 시장은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며 현대차그룹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.7% 감소
- '22년 하반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자동차 판매량은 기아의 소형SUV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.9% 증가하며 17.7%의 시장점유율 차지
- '22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동기 대비 10.2%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점유율도 전년동기 대비 0.4%p 줄어든 1.5%
  - \* 현대차그룹 중국 시장점유율(%): (19下) 4.0 → (20下) 2.5 → (21下) 1.9 → (22下) 1.5
- '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.4% 수준으로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8.2% 증가한 10만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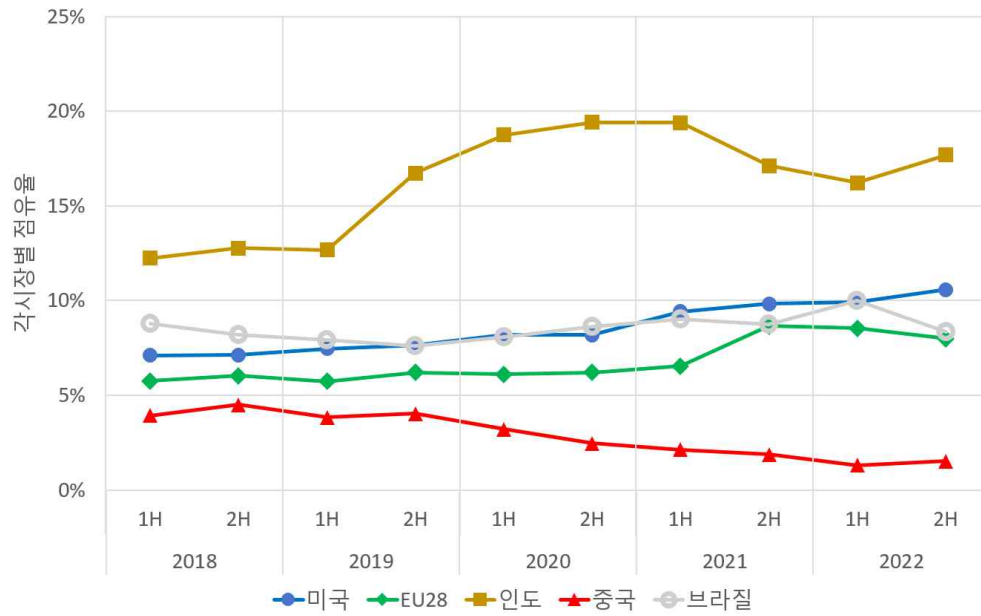
**주요시장별 현대차그룹 자동차 판매량**



자료: MarkLines



## 현대차그룹 주요시장별 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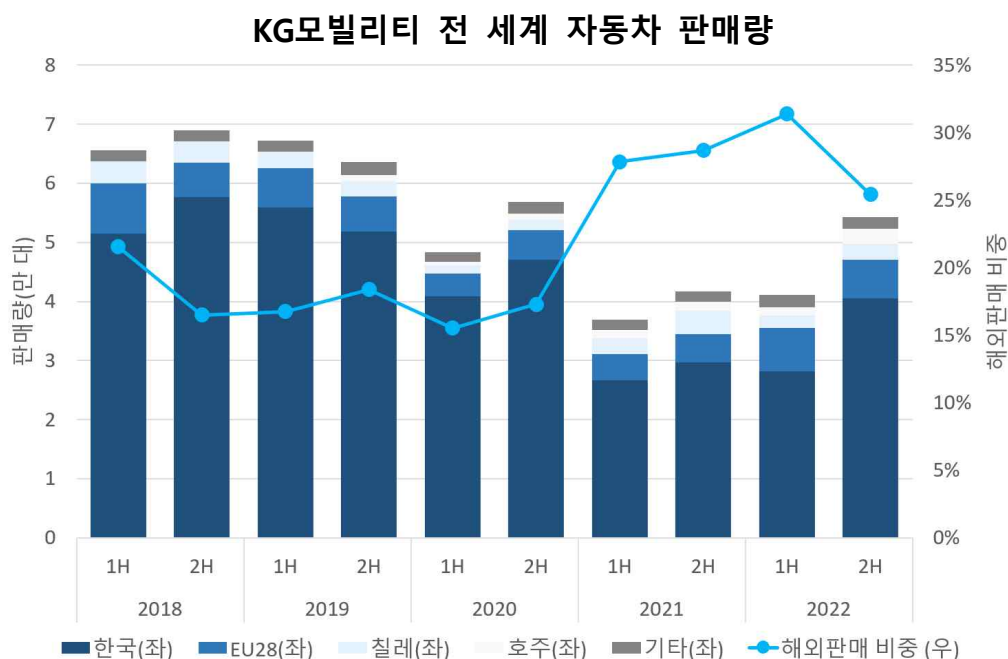
자료: MarkLines



## 나. KG모빌리티

**(판매량)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0.2% 증가한 5.4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'19년 하반기 판매량 6.4만대의 85.4% 수준까지 회복**

- (해외 판매량)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해외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5.3% 증가한 1.4만 대
-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해외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5.4%
- (주요시장)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한국(4만대) 외 주요시장은 EU28(0.7만대), 칠레(0.3만대), 호주(0.3만대) 순
- '22년 KG모빌리티의 판매량은 EU28, 칠레, 호주에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7.3% 증가, 29.6% 감소, 60.6% 증가
- (시장별 점유율) KG모빌리티가 칠레를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%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
-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0.3%p 줄어든 1.3%
- \* KG모빌리티 칠레 시장점유율: (19下) 1.4 → (20下) 1.0 → (21下) 1.6 → (22下) 1.3



자료: MarkLines



#### 4. 국내 제조사 매출 및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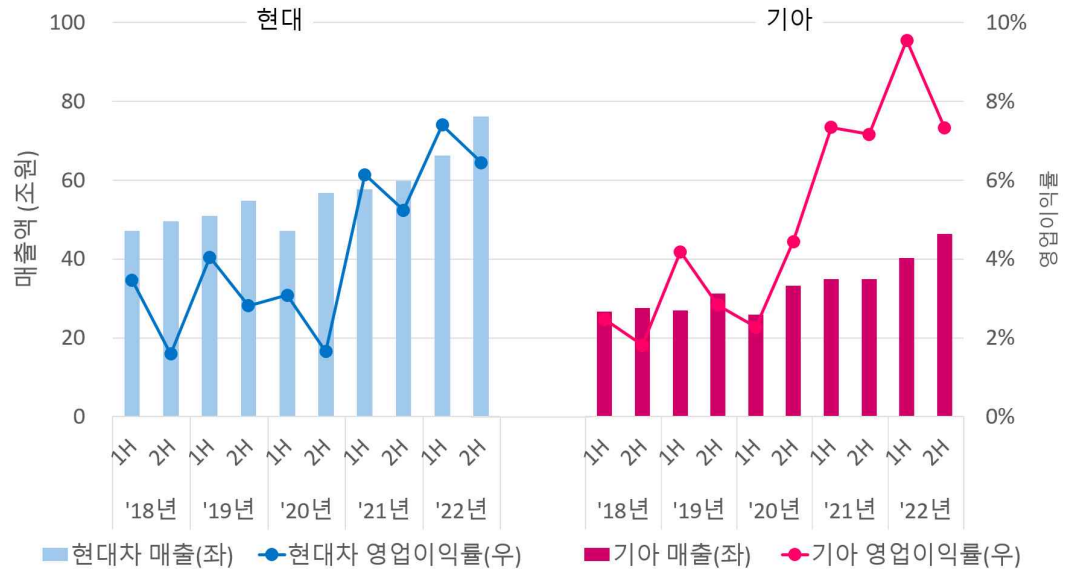
(현대차 그룹) 현대와 기아는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'22년 하반기 매출은 각각 27.3%, 32.6% 늘어난 76.2조원, 46.3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

- 현대자동차 및 기아는 '22년 3분기 세타2 GDI 엔진관련 품질비용이 발생했으나 우호적인 환율, 판매량 증가,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 등 평균판매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 확대
- (현대) '22년 하반기 현대의 매출액은 27.3% 늘어난 76.2조원이며 영업이익은 56.6% 증가한 4.9조원으로 영업이익률 6.4% 기록
  - 고금리와 경기침체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시장점유율 지속적 확대로 매출 증가
  - 2023년부터 수소 시내버스 및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도입하면서 제주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
  - 울산에 '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계획
  - 현대차는 인도 사업 확장을 위해 GM공장 인수를 추진 중
  - 현대차그룹은 SK온과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전기차 30만대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계획
- (기아) '22년도 하반기 기아의 매출액은 32.6% 늘어난 46.3조원이며 영업이익은 35.6% 증가한 3.4조원으로 영업이익률 7.3% 기록
  - 기아는 새로운 순수전기차 모델 EV9 판매 예정으로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확대될 전망
  - 태국 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혼합공장 설립 추진 중이며 완공 시 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
  - 경기도 화성에 '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계획
  - IRA영향으로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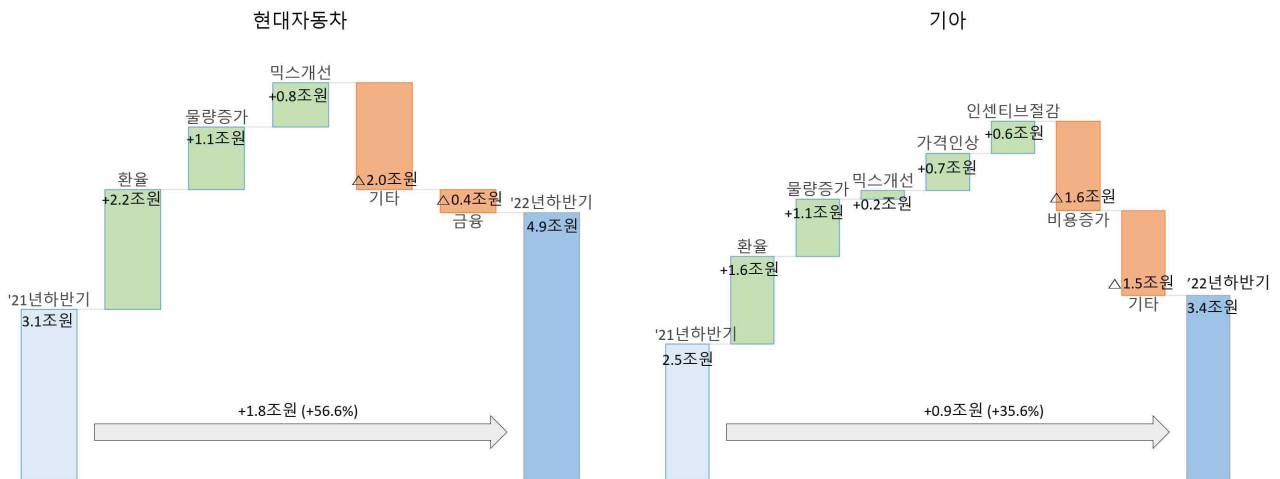


## 현대차그룹 매출 및 영업이익률



자료: 전자공시

##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증감 분석



주) 믹스개선: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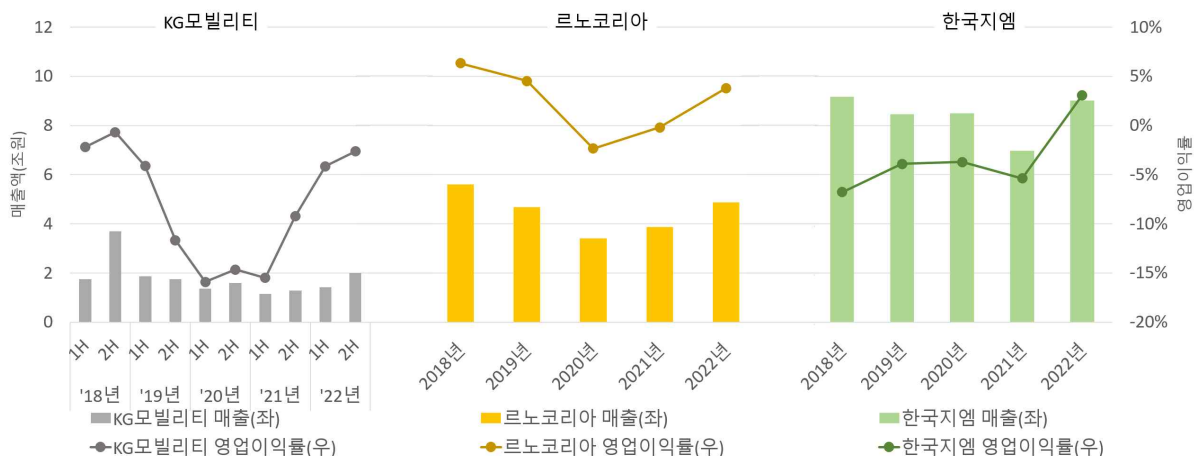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



## (기타) 2022년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각각 9년과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, KG모빌리티도 판매량 증가로 매출 확대

- (KG모빌리티) '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매출액은 56.2% 증가한 2조원이며 영업손실은 36.6% 감소한 529억원 기록
  - '23년 쌍용자동차에서 KG모빌리티로 사명 변경
  -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와 글로벌시장 현지판매 증대로 매출 증가
  - '23년 KG모빌리티는 신차 렉스턴 뉴 아레나, 렉스터 스포츠&칸 쿨멘 및 전기차 모델 토레스EVX 공개
  - '23년 4월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
  - KG모빌리티는 베트남 킴롱모터와 베트남 현지 조립생산(KD) 계약을 체결하고 '24년부터 생산계획
- (한국지엠) 우호적인 환율로 인한 가격강세로 '22년 한국지엠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9.2% 늘어난 9조원이며 영업이익은 2,758억원 기록하며 흑자전환
  - 반도체 가용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적자 탈피
  - 일부 차량 단종에 따라 '22년 12월 초 부평 2공장 가동 중단
- (르노코리아) '22년 르노코리아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.0% 늘어난 4.9조원이며 '21년 80억원규모의 영업손실에서 '22년 1,848억원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
  - XM3 중심으로 '22년 르노코리아의 수출 대수가 증가하며 흑자 전환

### 국내 완성차 제조사 매출 및 영업이익률



자료: 전자공시



### III. 시사점 및 전망

**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2023년에도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높은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세 둔화 우려**

- 반도체 공급난은 전년 대비 완화되었으나 완전한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완성차 제조사별로 반도체 및 부품 공급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판매량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전망
- KMPG 조사<sup>2)</sup>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 151명 중 65%가 '23년에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

-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될 전망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음

\* 주요국 기준금리('22.5.8→'23.5.8)(%): (미국) 1.00 → 5.25, (EU) 0.00 → 3.75, (한국) 1.50 → 3.50

**전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중국 및 유럽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별 성장세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**

- '23년 4월 미국은 IRA(인플레이션감축법)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'32년까지 신차의 67%를 전기차로 전환 계획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확대할 전망
- 친환경자동차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이 비교적 낮았던 미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<sup>3)</sup>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리스 비중은 미국 정부가 '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'를 발표한 '22년 12월 9.7%에서 '23년 3월 34.3%까지 증가
- 현대차그룹은 '북미 현지생산' 및 '배터리 핵심광물'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북미 현지 생산 등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리스·렌트 전기차 비중 확대 계획

<sup>2)</sup> KMPG(2023), Navigating short-term volatilit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

<sup>3)</sup> PIIE(2023), Industrial policy for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s and the US-EU fight ov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



- 중국 정부는 '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여 판매량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
  -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나 구매세 감면정책은 '23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
  -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나 상하이, 저장 등 지방 정부가 소비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
- 유럽은 보조금 축소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기차 충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 우려
  - 독일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 시 지원하던 최대 4,500유로의 보조금을 '23년 폐지하였으며 4만 유로 미만 순수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,000유로에서 '23년 4,500유로로 축소
  - 영국 및 스웨덴은 각각 '22년 6월, 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